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면하는 불평등

북한이탈주민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대응과 개선점

일시: 2023. 10. 7.(토) 13:00-15:00

주관: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배경

통일부 조사에 의하면 2022년 6월 기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약 30,000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다문화 가정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접하게 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도시 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간적 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 환경·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할 도시들이 대부분 별다른 배려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방치한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의 도시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청년들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문제점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목표

남북한 출신 대학생, 그리고 미국 대학생이 차례로 돌아가며 연사를 담당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종교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살아 가면서 느낀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담백하게 청중들에게 전달하며 북한이탈주민 차별이라는 문제 인식을 느끼게 만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면한 빈곤과 불평등을 알리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인권도시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들의 생각에서 시작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들이 앞으로 활용할 전략을 구성한다.



중점 논의사항

1.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
2.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도시의 모습
3.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변화해갈 인권도시의 모습
4. 인권도시들의 연대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인식 개선

